

HYUNDAI E&C TODAY

Vol 402
2021 / 7 / 16 FRI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사우들의 사진첩 속 여름 여행지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쉬어 찾아들지 않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꼭꼭 눌러둔 여행 갈증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 사진첩을 뒤적이며 예전 여행의 추억을 들춰보진 않는지. 다시 마음껏 여행하게 될 그날을 위해! 사우들이 소개하는 여행지 “내 마음속에 저장!”



아시아 최초의 HPC 프로젝트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플랜트 기술력으로 탄생하다

공정률 94%의 HPC Project Package-1 프로젝트 ... 오는 9월 시운전 앞뒤

울산·여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손꼽히는 대산단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에 불과했던 이곳이 대규모 간척사업 끝에 거대한 석유화학단지로 거듭났다. 현대건설은 1983년 6만 배럴 규모의 중질유 정제 및 분해시설 플랜트를 시작으로 현대오일뱅크 BTX공장, 청정연료사업, 고도화시설, 현대케미칼 MX Project 등을 준공하며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성장에 일조했다. 그리고 그 명맥을 잇는 HPC Project Package-1 프로젝트가 공정률 94%로 순항 중이다. 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중질유 복합석유화학)는 원유 정제 공정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활용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설비군을 일컫는다. 이 공정은 세계적으로 몇몇 업체만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다 쓰임새가 달한 석유 부산물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플랜트 기술력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의 HPC 공정 시공을 맡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 관련기사 6, 7면

The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is one of three biggest petrochemical complexes in Korea. A former sandbank was transformed into the large-scale petrochemical complex through a mega-sized reclamation project. Hyundai E&C has greatly contributed to expansion of the complex by constructing a petrochemical plant for the refining and cracking process with a capacity of 60,000 barrels in 1983 and then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a BTX production facility and an upgrading complex for Hyundai Oilbank. To be in line with the growth of the Daesan Complex, the HPC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is underway; about 94 percent of the project has been finished. HPC facilities are gaining attention since only a few companies around the world hold relevant patents to turn less used by-products of petroleum into higher value-added petrochemical products. Hyundai E&C i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Asia's first HPC facility.

▶ Continued on page 6, 7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TREND

하반기
건설 원자재 전망

CULTURE

노포
냉면 맛집 열전

VIEW

MZ세대
신조어 능력평가

HPC Project Package-1 현장 전경.

Jongno-gu Creative Education CSR “Fun Smart City” program



Our company held the Fun Smart City program at Cheongwoon Middle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located in Jongno-gu between July 5 and 7 as part of Jongno-gu Creative Education CSR program, which was the first educational activity since Hyundai E&C signed an agreement to operate the Creative Education CSR program with Seoul Jung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Jongno-gu Office and Hyundai Engineering in June.

The Creative Education CSR program was designed to help first-year students of middle schools in the district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participate in hands-on activities. This program offered educational content best suited to young students through consultations with our researchers on smart city technology. The participants had classes on future cities and smart cities and built up smart cities in their imagination with training aids.

종로구 창의교육 CSR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진행

우리 회사가 7월 5~7일까지 ‘청운중학교’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에서 종로구 창의교육 CSR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창의교육 CSR 프로그램에는 청운중학교 5개 학급(130여 명), 서울사대부여중 6개 학급(130여 명)이 함께했다. 지난 6월 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청,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창의교육 CSR 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첫 활동이다.

창의교육 CSR은 자유학기제인 중학교 1학년생들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현재 도시의 문제점 등을 깨닫고, 각자가 원하는 미

레도시(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보재를 활용해 상상 속 스마트시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사내 전문 연구원들의 자문을 거쳐 탄생했다. 강연은 ‘꿈키움멘토링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임직원과 대학생 멘토가 전문 강로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진행했다.

수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처음에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몰라 낯설어 하던 친구들도 수업이 진행되면서 호기심을 보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향후 진행 예정인 새로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힐스테이트의 새로운 디자인 ‘GEN Z(Generation Z) Style’ 개발

우리 회사가 새로운 컬러와 패턴이 추가된 ‘GEN Z(Generation Z) Style’을 개발해 ‘힐스테이트’ 디자인에 적용한다.

‘GEN Z Style’은 국제 컬러 컨설팅 협회(IACC) 부회장이자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시모 카이아초(Massimo Caiazzo)와 스페이스 디렉팅 전문회사 비에이 컴퍼니(BE:A Company)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개발을 통해 획일화된 아파트에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영감을 불어넣고, 브랜드 가치 극대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먼저 심도 있는 사례 조사 및 소비자 분석을 통해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선정했다. 아파



트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원점에서부터 입구, 고객의 눈높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단지 내부의 요소, 고객의 손길이 닿는 부분까지 고려한 ‘Consumer Big Touch Point’ 관점에서 특별한 디자인을 기획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올 하반기부터 힐스테이트의 문주, 지하주차장 등에 시범 적용 후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Pile driving automatic measurement system introduced



Our company sets out to introduce the pile driving automatic measurement (PDAM) system to our building and housing construction sites with the aim to preclude workers from involving in accidents and secure quality of pile driving construction.

Because the depth of pile driving is usually measured in a manual way, workers are highly likely to have accidents and often generate error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quality of pile driving construction. To solve the prob-



lems, Hyundai E&C reviewed a wide range of related technologies and chose the PDAM system of Woori Technology. Under this system, a special barcode is attached to a drop hammer, and a digital level gauge is used to measure and record the depth of pile driving. The measurement data can be sent to workers, managers and supervisors via Bluetooth and a mobile application in real time. The system makes it possible for users to check the depth of pile driving and the work progress in a prompt way.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말뚝 향타 관입량 자동 측정 기술 도입

우리 회사가 말뚝기조 공사에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말뚝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말뚝 향타 최종관입량 자동 측정 시스템(PDAM: Pile Driving Automatic Measurement System)’을 건축·주택 현장에 적극 도입한다.

보통 말뚝 향타 관입량은 수작업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공품질 관리 측면에서 취약했다. 우리 회사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검토한 결과 우리기술㈜의 ‘말뚝 향타 최종관입량 자동 측정 시스템’을 발

발급, 현장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낙하해머에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안전한 거리에서 디지털 레벨 측정이 등으로 말뚝 관입량을 측정, 기록할 수 있다. 측정한 데이터는 블루투스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향타 작업자, 말뚝시공 관리자, 감리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모든 말뚝의 향타 관입량과 작업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우리 회사는 올 3월 대전 소재 ‘갑천1 트러폴시티 힐스테이트’ 현장에 첫 도입 당시 시공 품질과 현장 적용성에 관한 검증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이 기술을 건축·주택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발굴해 협력사와 상생 경영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기술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생활권 갖춘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7월 분양 예정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371세대의 대단지로, 이 중 812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들어서는 계양구 일대에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1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항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통해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과 서울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인천세종병원, 한림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도 쉽다.

분양 문의 032-858-8022

History of Korean apartments through the Hyundai E&C apartments

When did apartments appear in Korea? Our traditional living space was in the form of traditional *hanok* and thatched houses. Let's look into the changes Korean apartments went through via the apartment development history of Hyundai E&C which was in charge of constructing the first generation apartments in Korea.

Mapo apartments in the 1960s, the first complex type apartment

Korea's first apartment is known to be the four-floor Eurim apartment in Chungjeong-ro, Seoul, built by the architect Toyoda in the 1930s. It had both stores and living space. The first of the complex type apartment we are used to is Mapo apartments, which were located in Dohwa-dong, Mapo-gu, Seoul, in 1964. Mapo apartments, which involved five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Hyundai E&C, had four six-floor I type complexes and six Y type complexes; they were Korea's very first complex type apartments.

Hyundai apartments, the origin of high rise and multi-complex apartment housing culture

In the 1970s, with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accelerating, city



population was surging and housing demand increased greatly, which naturally led to demand for large-scale apartments. This was when private housing business really started to take off. Hyundai E&C built the Seobingo Hyundai apartments with the goal of “providing convenient and refreshing living space for the end users through quality construction.” The successful sales of Seobingo Hyundai apartments led to the construction of Apgujeong Hyundai apartments. In mid-1970s, Apgujeong-dong was just a sandy field near the Han river, but with the first and second Apgujeong Hyundai apartment complexes, the area began to look like a proper neighborhood. Apgujeong Hyundai apartments created the typical “Korean apartments” through its harmony of

living environment.

Hillstate, the beginning of brand apartment era

In the late 1990s, apartment sales price liberalization and simultaneous sales system led to even more fierce competition in Korea's apartment market. This ignited the cause for the rise of brand apartments. In July 2000, Hyundai E&C built new apartments with 1,092 units in two areas in Incheon and announced the beginning of brand apartment era with their “Hyundai Home Town” brand. In September 2006, the Hillstate brand was launched, which could realize “traditional value and optimum value” of Hyundai apartments.

The first Hillstate was the Seoul Forest Hillstate, which was intro-



duced to the public in May 2009. It embodies all the aspects of luxury apartments Hyundai E&C pursues. Exterior design, including the yacht-shaped dynamic exterior,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partment's location landscape. Samseong-dong Hillstate, which was the “first gateway to Gangnam Hillstate,” had hydroponics space with Jeju hackberry trees to create the “nature in the middle of city” atmosphere, along with 10 other types of fruit trees for an orchard. New renewable energy system was also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to lead the way for eco-friendly/low-energy apartment construction.

THE H, rare premium apartments In April 2015, Hyundai E&C in-

troduced their premium apartment brand THE H. THE H inherits the H emblem, to maximize the brand asset they have been carrying, and attached the definite article THE, which means “the only name for a prestige life” to represent the rarity the brand carries. THE H was created to convey hous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like no other. More than three maximum, minimum, and only items are implemented while each complex involves differentiated design and construction. THE HHONOR HILLS, which was introduced in August 2019, proposed strict product standards for premium living space and was popular for its high-class living services which included their A/S and resident only mobile applications.

GROUP NEWS

Hyundai welcomes Boston Dynamics to “the Family” with special video showing BTS dancing with robots

Hyundai Motor Company today released a special brand video—starring BTS, world-wide pop icon and Hyundai Motor's global brand ambassador—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Hyundai Motor Group's acquisition of Boston Dynamics.

“With the acquisition of Boston Dynamics, Hyundai Motor will expand its new robotics business to provide customers with exciting mobility experiences,” said Thomas Schemera,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Global Chief Marketing Officer at Hyundai Motor. “We look forward to exploring new marketing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millennials and Gen Z, in particular, about the enormous potential offered by Hyundai's new robotics in daily life, enabling progress for humanity.”

In the video, “Welcome to the Family with BTS,” Boston Dynamic's robots Spot and Atlas dance with BTS to their song “IONIQ:



I'm On It,” an anthem released last year to celebrate the launch of Hyundai Motor's dedicated electric vehicle brand, IONIQ.

The video shows how Boston Dynamic's robots are programmed to conduct physical movements and—in this case—adapt them for dancing. In the video, the robots are challenged to conduct movements of BTS' choreography, eventually dancing together with the group to the music.

The video starts with Kid's NEXO guiding Spot into a film shooting studio, where the quadruped robot meets BTS.

Genesis premieres the G7 Shooting Brake

Genesis participates in 2021 Goodwood Festival of Speed, an international car festival held in West Sussex, England from August 8 to 11, and premiered the G70 Shooting Brake, its strategic model for the European market.

The Goodwood Festival of Speed is one of the UK's most anticipated annual auto festivals with more than 200,000 visitors every year. It offers a variety of attractions by exhibiting rare classic cars from different era, the latest supercars, F1 and WRC (World Rally Championship) race cars.

The G70 Shooting Brake is based on the new G70 sedan released last year, adding an element of practicality with increased trunk space. It highlights the athletic aspect in the balance of “Athletic Elegance,” which is Genesis' design identity. The G70 Shooting Brake already caught the world's attention for its new design in May.

Genesis will exhibit five models from its lineup at this year's Goodwood Festival, all of which are set for release in Europe, including



the G70 Shooting Brake, G80, GV80, G70 and GV70. It will also host the European debut of the Genesis X Concept, an EV-based GT (Gran Turismo) coupe concept car.

Genesis holds an event that each of its entire lineup models drive up the steep upward hill climb course, a unique event at Goodwood event. The event will mark the first time in history a single automotive brand has done this at the Goodwood Festival.

“It means a lot to unveil the G70 Shooting Brake, our strategic model for the European market, at this distinguished international car festival,” said Dominique Boesch, Managing Director for Genesis Motor Europe.

사우들의 직찍 모음 여름이니까~ 시원한 여행지!

여름특집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쉬어 찾아들지 않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꼭꼭 눌러둔 여행 갈증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 사진첩을 뒤적이며 예전 여행의 추억을 들춰 보진 않는지. 문득, 우리 사우들의 사진첩에는 어떤 여행지가 추억으로 남아 있는지 궁금해졌다. 다시 마음껏 여행하게 될 그날을 위해! 사우들이 소개하는 여행지, “내 마음속에 저장~” 글·정리=이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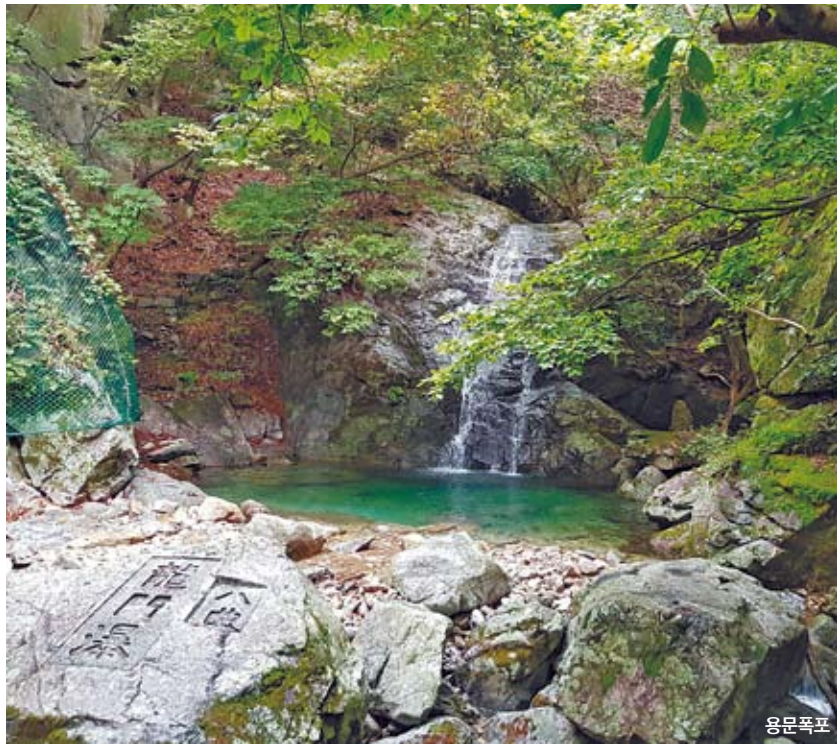


함덕해수욕장

“국내일까요, 해외일까요? 에메랄드빛 바다의 아름다움”
제주 함덕해수욕장

(위 왼쪽) 제주는 국내 여행의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에메랄드빛 바다가 넘실거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함덕해수욕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진만 보면 해외인지, 국내인지 모를 정도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 눈으로 시원함을 함께 느껴보아요!
박도위 매니저(명맥사정연립 재건축)

(위 오른쪽) 함덕해수욕장은 맑고 청량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대표적인 제주에서도 전 도민들이 자랑하는 해수욕장이예요. 특히 바로 옆 서우봉에 오르면 한라산과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답니다!
김두환 매니저(제주 JW 메리어트 리조트 본공사)



용문폭포

“차가운 계곡물이 내 발을 감싸네”
충남 공주 계룡산 용문폭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더 좋은 계룡산 용문폭포를 소개합니다. 쏟아지는 물줄기에 눈과 귀는 물론 가슴까지 뻗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폭포에 올라가다 들을 수 있는 갑사는 자연의 운치를 더하고요. 산길을 오르다 바로 옆 계곡에 발을 담그면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류준호 책임매니저(플랜트설계관리팀)



낙강물길공원



월영교



만류정

“발길 닿는 곳 전부 멋진 여행지”
경북 안동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여행지. 안동에는 인산 깊은 곳이 많아요. 우선 월영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교로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지난해에 새 단장한 덕에 주변 산책로도 잘 꾸며져 있어요. 월영교 입구 근처에는 안동의 대표 음식인 ‘헛재사밥’을 맛볼 수 있는 식당도 있답니다. ‘안동’하면 하회마을이 유명하잖아요. 시간을 잘 맞춰 가면 탈출 공연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가족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 만류정도 인기가 많은데요. 만류정으로 들어가는 외나무다리가 인생사진 남기기 좋은 포인트예요. 외나무다리 주변으로 폭포수가 흘러 시원함을 더하죠. 안동댐 바로 아래쪽에는 화가 모네의 <지베르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낙강물길공원이 있는데, 계절마다 바뀌는 꽃과 식물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이 기억에 남아요. 안동 여행 후 시간이 괜찮다면 근처 영주 지역에 들려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무량수전 앞에 서서 웅장한 풍광을 보면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답니다.

홍성욱 책임매니저(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제14공구)



괘방산

굴업도

“뷰가 끝내주는 백패킹 성지를 소개합니다”
강원 괘방산·선자령 & 인천 굴업도

백패킹을 즐기신다면 강원도와 인천의 두 여행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선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웅장한 일출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괘방산과 <강철부대> 산악 행군 촬영지로 시원한 바람이 일품인 선자령은 서울에서 KTX로 갈 수 있고, 고지대라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갈라파고스와 불리는 인천의 굴업도에 가면 아름다운 석양과 바다, 수려한 갈대밭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사슴 무리가 연출하는 장관 또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신정무 매니저(건축주택토목팀)

“시원한 풍경으로 날려버리는 여름 더위”
충북 단양 잔도길 & 스카이워크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단양은 석회암으로 형성된 절벽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단양역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잔도길’이 나오는데요. 강 물줄기를 감싼 절벽에 걸친 데크로드라 주변 자연 풍광을 감상하며 한가롭게 걸을 수 있어요. 잔도길을 걸은 후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남한강 경치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시원한 풍경이 여름 더위를 날려줘요. 당일치기로 힐링할 수도 있고, 1박 이상 여행할 계획이라면 근처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휴양소 ‘소노문 단양(구 대명리조트)’도 있습니다. 풍경이 예쁜 게 꼭 근처 펜션이나 캠핑장도 있으니 마음 가는대로 여행할 날이 어서 오면 좋겠네요!
황석열 책임매니저(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공구)



만천하 스카이워크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가깝고 아름답고 즐길 거리 많은 곳”
경기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저는 여름이 되면 늘 대부도에 놀러 갑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해 바다를 보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고, 물 빠질 때 맞춰 바로 옆에 위치한 제부도로 넘어가기도 좋거든요. ATV를 타거나 바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예쁜 풍경에 인생샷 남기기에도 최적의 스폿! 대부광산 퇴적암층 정상에 올라가면 초록빛 퇴적암층 내 호수와 탄도항 쪽 푸른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광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멋진 장소, 저만 알기 아까워 공유합니다.
허광선 매니저(현대직사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아이들도 놀기 좋은 코발트빛 바다”
강원 고성 아아진

여름 하면 바다. 바다 하면 동해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강원도 고성의 ‘아아진’, 코발트 빛 바다에 파도도 잔잔하고 곳곳에 암석 흠이 있어 어린이가 물놀이하기에도 좋습니다. 속초관광시장, 송지도 등이 가까워 함께 들르기도 편해요!
정인수 책임매니저(수영 경기체계 개선 TFI)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여수 밤바다~ 여수 먹거리~ 최고!”
전남 여수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지! 여수에 가보셨나요?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탁 트인 전망을, 낭만적이고 환율한 여수 밤바다에 가면 돌산대교와 음악분수가 선물하는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식 bathhouse 계장 배변과 물산갓김치, 갈치조림 등 먹거리도 풍부해 인기 만점 관광지예요.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 군락이 탄성을 자아내는 오동도는 트레킹 코스로도 잘 갖춰져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느리게 걷는 여행지로 좋습니다.
박용준 매니저(GBC사당단)





현장과사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소재의 석유화학단지. 단지 옆 바다를 매워 만든 67만㎡ 부지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가 들어서고 있다. HPC는 원유 정제 공장에서 남은 중질유를 열분해에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설비로 아시아에서는 처음 선보인다. 현장은 오는 8월 기계적 준공(Mechanical Completion), 9월 시운전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박현희

HPC Project Package-1 현장 & 플랜트품질팀

아시아 첫 메가 HPC 플랜트 ... 고부가가치 창출 동력이 되다

완벽 시공 자랑하는 고난도 메가 프로젝트 ‘HPC Project Package-1’ 현장

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3조원(당사분 85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HPC는 원유 정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질유를 활용해 포장재, 필름, 메트, 완충재 등으로 사용되는 ▶에틸렌 초산비닐(EVA, Ethylene Vinyl Acetate),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지 않아 분유병, 식품 용기, 장난감의 재료가 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내충격성이 높아 범퍼 등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이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설비를 일컫는다. 보통 경질유인 나프타(Naphtha·납사)를 활용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지만, HPC 설비는 원유 짜기기로 불리는 중질유(탈황중질유·부생가스·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투입할 수 있

어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쓰임새가 적었던 중질유를 크래킹(Cracking·열분해)해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은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 등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몇 개 업체만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08년부터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시설 공사, 현대케미칼 MX Project, 현대오일뱅크 Revamping & SDA/DCU Revamp Project 등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시공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HPC 건설에 이름을 올렸다. 발주처는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합작사인 현대케미칼로, 우리 회사는 주간사로서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HPC Project Package-1(이하 ‘HPC Package-1’)에 참여했다.

HPC Package-1은 크래킹 가열로(Furnace) 6기와 원유를 온도에 따라 분별증류(액체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방식)하는 정지인 스플리터(Splitter) 3기, 정류탑(Fractionator) 1기, 증류탑(Quench Tower) 1기 등을 짓는 공사다. 원료에 따라 액체(Liquid) 가열로(1~3호기)와 가스(Gas) 가열로(4~6호기)로 나뉘는데, 이 중 1~3호기가 HPC 설비다. 현장은 27개월이라는 짧은 공기에 맞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속도전을 펼치고,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로 달라붙은 현장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2019년 6월 착공한 현장은 같은 해 10월 벨 탱크(Ball

Tank) 지역 파일 시항타를 시작으로 2020년 8월부터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크래킹 가열로를 시공했다. 좁은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C3-스플리터(프로필렌 프로판 증류탑) 등은 작업 공간을 넓 차지하는타워 리프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공정 간섭과 협력사간의 장비 간섭을 줄이고자 공구장들과 드론 영상을 보며 작업 우선순위를 매일 조정했다.

협소한 공사 부지 안에서 매일 8000명이 넘는 근로자와 150대가 넘는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인 만큼 품질-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은 본사 플랜트품질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였다. 현재 해수 배관 내부의 부식 위험성을 막는 고난도 기술인 Glass Flake Lining 시공을 위해 플랜트품질팀과 매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밴드 지급, 이동식 CCTV 및 스마트 액션 카메라 도입 등 첨단 기술을 더해 현장을 관리했다.

현장의 공정률은 94%. 오는 8월 기계적 준공, 9월 시운전을 시작해 테스트를 마친후 현대케미칼은 12월부터 제품 생산에 돌입한다. 현대케미칼은 HPC 프로젝트로 연간 6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과거의 성공적인 준공이 HPC Project Package-1 수주로 이어진 것과 같이 오늘의 구슬땀이 내일의 수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에 발주될 현대오일뱅크 증설공사를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플랜트 현장의 품질 역량을 높이는 ‘플랜트품질팀’

세계적인 품질 전문가 조셉 주란(Joseph Juran)은 “품질은 제품의 영혼이며, 기업의 생명이다”고 말했다. 기업의 생사를 거론할 만큼 중요한 ‘품질’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플랜트품질팀은 우리 회사의 국내외 플랜트 현장들과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플랜트품질팀의 임무는 크게 ▶품질기획 ▶기술지원 ▶교육훈련 분야로 나뉘어 있다. 먼저, 품질기획의 목표는 리스크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 최근 위험도 기반 수행프로그램 ‘RBE(Risk Based Execution)’를 개발했다. RBE는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시공 절차 및 관리 항목을 차별화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사우디 마잔 오일처리 시설 신설 및 확장공사 외 1개 현장에 적용 중이나, 추후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 공사 등으로 확대 적용 예정이다.

기술지원은 용접, 부식, 도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안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술지원 데이터는 사례집 『기고만장(技高萬丈)』으로 엮어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용접/ NDE(Non-Destructive Evaluation) ▶부식/균열 ▶도장/비금속 ▶소음/진동 ▶열/유체 등 플랜트품질팀의 기술지원 사례와 플랜트연구팀 등 우리 회사 기술연구소와의 협업 내용 등이 알차게 담겼다.

팬데믹 이후로는 언택트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1.HPC Project Package-1 현장 전경. 2. 원료 가열기(Vacuum Column Feed Heater)는 원료를 진공 증류탑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분리하는 데 필요한 온도인 385℃까지 승온시키는 역할을 한다. 3. 공기를 필요한 압력에 맞추는 에어 탱크(Air Receiver Tank)가 높이 솟아있다. 4.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습식 산화 설비(Wet Air Oxidation Package). 5. 터워 리프트 시스템을 이용해 크래킹 가열로를 시공하고 있다.

“유기적인 협력... 무결점 품질의 원동력이죠”



먼저 맡은 임무를 소개해 주세요.

팀워크를 이뤄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기도 했다고요.

이장원 책임(이하 이장원) 2019년 8월 HPC Package-1 현장에 부임해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품질보증(QA) 및 기계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품질 절차를 수립하고 대내외 품질 감사에 대응하거나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김성훈 책임(이하 김성훈) 안녕하세요. 저 역시 현장 품질관리팀원입니다. 배관라인 설치 및 검증을 위한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보온-도장 작업 등 배관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책임(이하 김영곤) 본사 플랜트품질팀 기술지원 파트에서 용접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장에 용접 기술을 솔루션, 국제 용접 코드 기준 등을 제공하고 현장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도 진행합니다.

김철중 책임(이하 김철중) 플랜트품질팀에서 도장 분야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장 관련 품질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최적의 도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해 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죠.

현장 품질팀과 본사 플랜트품질팀이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곤 격주에 한 번 이장원 책임님 등 현장 품질팀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슈 발생 시 적기에 문제를 해결해 현장의 품질과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장 품질팀과 저희의 목표죠.

이장원 김영곤 책임님과는 플랜트품질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부임한 후에도 용접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술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죠. 우리 현장은 27개월 만에 약 180만Dia-inch(용접이 필요한 배관 파이프 몰량 단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약 110명의 TPI(Third Party Inspector·제3의 검사원)를 투입해 품질을 관리했고, 우리 회사도 이에 대응하고자 33명의 품질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 20명이 주니어급이었지만, ‘실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플랜트품질팀의 지원을 받아 용접·부식·도장 등 품질기술 교육을 12회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현장의 품질 향상은 물론, 발주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훈 저는 김철중 책임님과 해수 배관 내부의 부식을 막는 데 탁월한 도장 기술인 Glass Flake Lining 건으로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Glass Flake Lining은 합성수지에 우리 입자를 보강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잦은 마찰에도 닳지 않도록 내마모성을 강화한 코팅 재료입니다. HPC Package-1의 해수 라인에 에틸렌 초산비닐 생산 공정의 일부 열교환기에 바닷물을 냉각 매체로 공급합니다. 만일 Glass Flake Lining 손상으로 배관이 부식한다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기에 특별히 무결점 시공이 요구되죠.

김철중 Glass Flake Lining이 배관 부식을 방지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시공의 난도가 무척 높습니다. 잘못 시공하면 배관 내부 도장 면이 들뜨고 깨져서 배관을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부식되죠. HPC Package-1 현장처럼 자재에 시공하는 경우엔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주처도 이런 상황을 알고 Glass Flake Lining을 주요 관리 항목으로 지정했어요. 공사 초기부터 시공업체와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도장 특징, 작업 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고, 현장 품질팀 강사·신성기 책임님과 함께 현장에 나가 단계별 작업 절차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도장에 대한 경험도 많아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3-스플리터 설치 모습.

총 사업비 3조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 직원들도, 노력하는 본사 직원들도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장원 현장은 우리 회사의 어느 프로젝트보다 공기 대비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현장은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하는 국제 규격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ISO 29001:2020’ 인증 갱신을 위한 대표 현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힘써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한 결과, 우리 회사가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죠.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생각에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영곤 짧은 시간에 180만Dia-inch나 되는 물량을 완료한 것도 대단하지만, 용접 불량률 1% 미만이라는 점도 자랑할 사항으로서 무척 기쁩니다. 배관 용접 피크 때 현장과 본사의 협업이 잘 이뤄진 점도 뿌듯하구요.

김철중 공사 초기 황무지 같은 현장이 어느새 설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결점 현장’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건설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플랜트품질팀은 우리 회사의 모든 플랜트 프로젝트를 위해 존재합니다. HPC Package-1 사례처럼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계속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훈 우리 현장은 불가능해 보였던 공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품질을 확보하며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HPC Package-1 현장 & 플랜트품질팀 파이팅!



하반기 건설 원자재 전망... 추가 가격 상승에 대비하라

경제칼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시행을 배경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원가 상승과 함께 기업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글=임석 <코리아PDS> 책임연구원

하반기 건설 산업을 둘러싼 리스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설자재비 상승이다. 지난해 연말을 저점으로 다수의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산업 수요가 회복되면서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연출됐고, 이는 곧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평균 건축공사비 중 재료비의 비중이 25%를 차지할 만큼 공사원가에서 원자재 구매 비중은 크다. 대한건설사자재직협회는 지난 3~4월 59개 공공 및 민간 공사 현장에서 철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 부족으로 20일가량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비록 6월 초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나 건설자재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공사 지연과 함께 지체보상금 지불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공사원가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철강재... 타이트한 공급에 가격 상승 지속

최근 정부의 대책 역시 철근을 비롯한 철강재 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정도로 철강재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은 건설자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철근·형강·중후판·열연코일 등 주요 건설 관련 철강재 가격은 지난해 말을 저점으로 50~80%가량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와 같은 철강재 가격 상승은 공급 악화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형강의 경우 지난해 말 완료 예정이던 현대제철 대형 압연 신예화 작업이 수차례 지연된 후 올 4월 말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그 외에도 파업과 중형 대보수까지 더해지면서 생산량이 2019년 수준을 하회했다. 철근의 경우도 5월 현대제철 당진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가격이나 부족한 공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철강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입도 감소했다.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세 환급 폐지로 인해 중국 제강사들의 수출 유인이 줄어든 것도 영향

이 크다. 이와 함께 원재료 가격 강세도 국내 철강재 가격 급등에 여파를 줬다.

고로 원재료인 철광석의 경우 견고한 중국 수요와 함께 브라질에서의 공급 차질 우려, 선물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 증가로 인해 5월 한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료탄의 경우도 중국 내 탄광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감찰 강화에 공급이 위축되면서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00달러(아시아 현물 가격)를 상회하는 등 연초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전기로 원재료인 철스크랩은 국내외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철강재 가격 상승을 지지했다.

하반기에도 철강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대한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가 상반되는 물론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도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에 현대제철 인천 대형 및 중형 H형강 공장 유지보수, 동국제강의 신예화 작업이 예정돼 있어 H형강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중후판의 경우도 10월에 포스코 포항 2공장과 현대제철 당진 2공장의 유지보수가 계획돼 있어 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강재 수요 증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제강사들이 보유한 철스크랩 재고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철스크랩 가격 상승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듯하다.

고로 원재료인 철광석의 경우도 세계 2위 생산업체인 Vale의 생산능력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높은 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비철강 건설자재도 가격 상승세 유지될 것

지난 상반기에는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골재의 공급도 부족했다. 주요 시멘트 업체가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에 발맞춰 환경 관련 투자를 늘렸던 까닭에 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했다. 수출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수로 전환시

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주요 운송 수단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부족 또한 시멘트 공급 차질을 가중시켰다.

시멘트 부족 사태는 필연적으로 레미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 또한 레미콘 시장에서는 수도권 믹서트럭 토요 전면 휴무제 실시, 제조사와 운수 사업자 간의 운반비 협상 난항 등 자체적인 공급 차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골재의 경우도 천연 골재 공급이 감소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수급 부족 상황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지난해 줄어들었던 건축 부문 투자가 하반기에 회복되는 등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환경 이슈와 연계된 설비 보수로 인해 생산량 부족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운임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비용 전가 가능성이 높다.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 부족과 더불어 레미콘 운송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반비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며 레미콘 가격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골재 수요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전망했던 3.5%보다 1.3% 포인트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공급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전기동 가격이 상반기 한 때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선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아왔다. 비록 최근 들

어 중국의 전략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이슈로 인해 가격 조정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 주요 구리 산지인 칠레와 페루에서의 생산회복 지연 등에 힘입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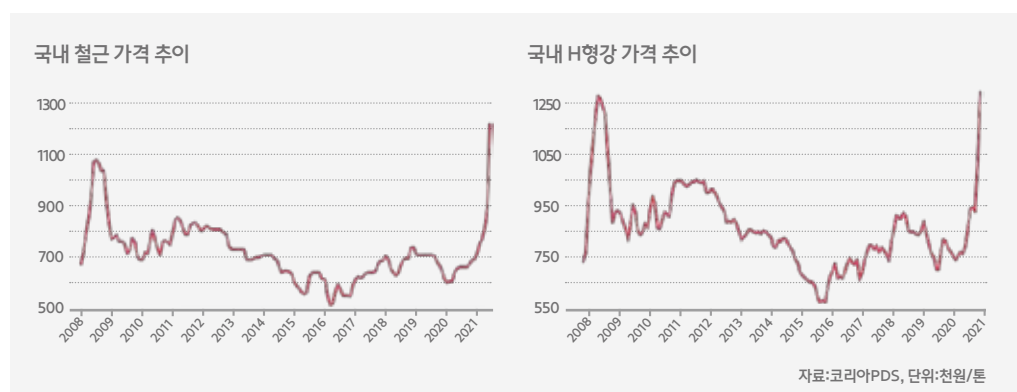
전기동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전선 구매가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준이 단기간 내에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칠레와 페루에서의 광산 생산량 회복이 코로나19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예측돼 가격 상승을 지지할 전망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격 분석이 필요할 때

상반기의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끝이 없을 전망이다. 품목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공급 상황이 다소 호전될 수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눈치보기 게임도 격화될 예정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 확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미국발 조기 긴축 가능성 제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하반기 국내 건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이슈이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포 냉면 맛집 열전

문화칼럼 아무리 이열치열이라지만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냉면만 한 음식도 없다. 시원한 육수 한 모금 크게 들이켰을 때 입안 가득 찬 감칠맛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재미도 자꾸 냉면을 찾게 되는 이유. 습습하거나 짭조름하거나, 냉면은 각양각색의 맛으로 침샘을 자극한다. 그러나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 또 있다. 50여 년, 길게는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냉면집이 품은 오랜 이야기다. 깊은 역사가 그 맛을 더하는 전국 노포(老鋪) 냉면 맛집을 소개한다. 글=권오찬 자유기고가

피란민이 만들어낸 부산의 맛, 밀면 부산 남구 우암동 ‘내호냉면’

Since 1919

빨간 양념장이 올라간 부산 밀면은 묘하게 함흥냉면과 닮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 부산 밀면 이야기는 ‘함흥냉면’과 ‘쌈국수’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부터 시작된다. 1950년 6월, 기습 남침한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해 부산이 피란길의 종착지가 됐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 함흥·흥남 지역 10만여 명의 피란민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 도착한 곳이 거제 장승포였으니 함경도의 농마국수와 이들이 부산에 정착해 만들어낸 밀면은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이북에는 감자 전분을 가져가면 식당에서 품삯만 받고 국수를 만들어주는 ‘쌈국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우암동 내호냉면에서 동향성당 하 안토니오 신부님의 의뢰를 받아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7대3의 비율로 섞어 만들어낸 것이 밀면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내호냉면이 부산에서 개업한 시기는 1953년이나 실제 역사는 1919년 이북에서 개업한 동춘면옥으로부터 다져야 한다. 동춘면옥의 주인장이었던 이영순 할머니가 전쟁 중에 피란을 와서 같은 상호로 식당을 열었다가 10여 년쯤 되던 해에 고향인 함남면 내호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내호냉면’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므로, 밀면 원조 식당임에도 상호에 ‘냉면’을 사용하는 것은 식당의 뿌리가 냉면집이었던 동춘면옥이고, 초창기 메뉴 역시 밀면이 아닌 냉면이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가 되살려낸 진주냉면 경남 진주 이현동 ‘하연옥’

Since 1945

진주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인 비빔밥과 냉면이 모두 탄생한 유일한 도시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화려한 고명이 인상적이다. 음식이 화려하다는 것은 소비 주체가 돈 있고 권세 있는 지배계층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진주냉면은 지역 양반과 관리들이 기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인데, 교방과 기생조합 권변의 해체에 따라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나마 기방에서 나온 숙수들이 진주 중앙시장에 냉면집을 개업해 명맥을 이었으나, 이마저도 1966년 2월 발생한 화재로 끊어지게 된다. 분명 문헌에는 남아 있으나 만드는 이 없는 진주냉면을 되살린 계기는 부산방송과 진주시, 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원의 김영복 원장이 합작해 2000년 방영한 다큐멘터리 <진주냉면>이다. 이렇게 온고지신한 조리법은 서부시장에서 ‘부산냉면’을 운영하던 황덕이 할머니에게 전수됐고, 간판도 ‘진주냉면’으로 바꾸게 된다. 이후 막내딸이 물려받은 본점은 본인의 이름을 딴 ‘하연옥’으로, 아들이 물려받은 가게는 며느리의 이름을 딴 ‘박군자 진주냉면’으로 계보가 나뉘게 된다. 평양냉면에 익숙한 이들은 해물 육수의 감칠맛과 그릇 가득 올려진 육전과 계란 지단, 편육 등의 고명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특색이 분명한 만큼 호불호 역시 강한 편이나, 진주냉면의 역사를 알고 먹으면 오히려 맛의 균형과 완성도가 탄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평양냉면 역사의 산증인 서울 중구 주교동 ‘우래옥’

Since 1946

우래옥의 전신은 평양에서 명월관이란 식당을 운영하던 장원일·나정일 부부가 광복 직후 남하해 1946년께 서울에 문을 연 서북관이다. 한국전쟁 때 피란 갔다가 ‘다시 돌아



내호냉면



하연옥



우래옥

옥천냉면
황해식당오장동
흥남집

와서 열었다’고 해 우래옥(又來屋)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대부분의 이북 냉면집들이 한국전쟁 당시 피란 내려와 개업한 것에 반해 이 집은 광복 직후 문을 연 서북관으로 부터 역사가 시작되니 현존하는 최고(最古) 업력의 평양냉면 식당이다.

평양냉면은 양념과 조미료에 좌우되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 맵고 달고 짜고 신맛이 일체 배제된 습습한 절제미가 강조되는 음식이다. 그 때문에 오히려 은은하게 올라오는 메밀향, 채로 썰어낸 배의 달큰함, 맑은 육수를 들이킨 후의 육향 등이 하나하나 제대로 느껴진다. 우래옥은 오로지 한우로만 육수를 내기에 시중의 다른 평양냉면보다 향이 진하기로 유명하다. 맛있다라고 해 평양냉면을 멀리 하는 이들에게 ‘평양 입문식당’으로 추천할 만하다.

우래옥 본점에는 단골들만 주문하는 비밀 메뉴가 있으니 이북의 여름 별미인 ‘김치말이’다. 보통 김치말이라 하면 붉은 김치국물로 말아낸 하얀 소면을 떠올리기 쉬우나, 원형에 가장 가깝게 재현한 이곳의 김치말이는 밥이 말아져 있다.



김치말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해주냉면 경기 양평 옥천면 ‘옥천냉면 황해식당’

Since 1952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서울에 안착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 성장했지만, 북한 황해도 해주 지역의 냉면은 인구가 많지 않은 백령도와 경기도 양평 옥천 지역에 자리 잡아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절대적인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오히려 이북의 지명으로 불리는 데 반해 해주냉면은 남한의 지명을 따 ‘백령냉면’ ‘옥천냉면’으로 불린다는 점이 재밌다. 두 냉면은 모두 황해도 해주에서 나왔으나 각자 특성이 강해 ‘배다른 형제’에 가깝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알아주는 곳은 6번 국도 대로변에 자리한 ‘옥천냉면 황해식당’이다.

한국전쟁 때 황해도 금천에서 부산으로 피란온 부부는 종전 후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경기도 양평으로 올라왔다. 옥천(玉泉)이라 불리는 곳에 잠시 거처를 정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북에서도 만들었던 냉면을 팔게 되니 이 시기가 1952년이요, 바로 옥천냉면 황해식당의 시작이자, 이북 음식인 해주냉면이 경기도 양평의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이 식당에서는 여타 냉면집에서 만나기 힘든 존재감 강한 결들임 메뉴가 존재하니 바로 큼직하게 부쳐내 위장을 든든하게 하는 완자다. 통통한 메밀면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과 조선간장의 짭조름함, 돼지고기 육수의 감칠맛 등을 한층 더 조화롭게 해주는, 2년 이상 염장해 숙성시킨 무로 만들었다는 무짬지도 별미다.

대한민국 함흥냉면의 전설 서울 중구 ‘오장동 흥남집’

Since 1953

‘오장동 흥남집’의 창업주인 노용언 할머니는 함흥 출신으로 흥남부두 철수 작전 당시 거제도과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1953년에 식당을 열었다고 전해진다. 70여 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으니 흥남집의 역사가 곧 남한의 함흥냉면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상 함흥냉면은 비빔으로 먹기 마련이고, 비빔은 면에 숙성된 양념화만 얹어 나오는 반면 이 집은 비빔냉면이라든가 특제 비빔 소스인 ‘간장 육수’가 자작하게 담겨 나온다. 간장 육수는 뭉치기 쉬운 고구마 전분 국수 타래를 부드럽게 풀리게 하고, 양념이 고루 비벼지도록 하는 것으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 집의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설탕과 참기름을 ‘다소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면에 설탕을 뿌려 단맛이 배게 한 다음 식초와 겨자를 둘러 초벌로 비비고, 참기름을 두른 후 제대로 비벼내면 된다. 면에 스며든 달달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매콤한 양념이 치고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대미를 장식한다. 함흥 비빔냉면의 매운맛은 물로는 행개내지 못하는데, 냉면 한 젓가락 먹고 따뜻한 육수를 한 모금 머금으면 신기하게도 매운 맛이 순해진다.





‘예능왕’ 넘보는 ‘농구 대통령’ 허재

피플인사이드 농구 대통령 허재가 예능 왕좌까지 넘보고 있다. “TV만 켜면 허재가 나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났던 농구 스타, 압도적인 경기력과 카리스마로 농구판을 평정했던 허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망가진 ‘허당’의 모습으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글=정영재 <일간중앙> 전문기자 / 사진=전민규 기자

2018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끝으로 코트를 떠난 허재는 스포츠 레전드들의 조기축구 도전기 JTBC <몽쳐야 찬다>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어진 농구 예능 <몽쳐야 쏜다>에서는 ‘삼암 불낙스’ 감독을 맡고 있다. 프로농구 팀에서 뛰고 있는 두 아들 허웅과 허훈도 아버지와 함께 예능판 접수에 가세했다. 이들은 ‘코삼부자’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Q 가장 신경 쓰이는 프로는 역시 ‘몽쑈(몽쳐야 쏜다)’인가요?

제일 신경 쓰이죠. 농구인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면 나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고, 부담감이 있죠. ‘찬다(몽쳐야 찬다)’에서 ‘쏜다(몽쳐야 쏜다)’로 편성이 연결됐을 때 부담도 많이 됐고요.

Q 본적 예능 입문 프로인 ‘몽찬’에서 “그거슨(그것은) 아니지”라는 유행어를 히트시켰는데요.

평소 술 먹으면서 자주 했던 얘기라 무심코 나왔는데 그게 유행어가 됐네요. 예능 하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건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있는 자체로 나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드라마나 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상대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리얼하게 리액션을 하다 보면 괜찮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Q 농구 체력과 축구 체력은 다른가요?
‘몽찬’ 초반 한두 달은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촬영을 하겠나 싶었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는 체육관에서 비·바람·눈을 맞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프로그램 오프닝을 위해 땀별 운동장에서 두 시간 정도 서 있으니 어질어질하고 몸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두세 달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나중에는 적응이 됐어요. 술을 줄이고 몸 관리도 좀 하고요.

Q 예능을 한 후 표정이 밝아졌어요.

농구는 승패를 결정내야 하니까 나와의 싸움, 상대와 싸움, 매일 전쟁이고 전투

죠. 6개월 시즌 끝나면 팀을 재정비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용병 구하러 다녀야 하니깐요. 한마디로 전쟁 끝나면 바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Q 본인은 마음이 편했지만 “농구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망가져도 되나”는 얘기도 많이 들었대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허당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진짜 못해요. 내 나이 오십 중반인데 몸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근육도 없고.. 심지어 줄넘기도 못해요. 옛날에는 이단 줄넘기를 한 번에 500개, 1000개씩 했는데 지금은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예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는데 안 된다니까요.

Q 예능 선배 서장훈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예능인으로서 장훈이를 판단해 본 적은 없었고요. 선수 때도 데리고 있어 봤지만 워낙 언변이 좋고 차분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이야기도 논리정연하게 잘하던 친구였죠. 스포츠인으로서 예능 하는 건 100점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장훈이가 부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요.

Q 당대 레전드들이 TV와 예능으로 몰려가 버리면 농구판 소는 누가 키웁니까?
사실 장훈이도 농구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어릴 때부터 한 게 농구니까 농구에 정이 더 가는 거죠. 나나 장훈이나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 중 (전)창진이 형, (유)재학이 형 빼고는 다 후배인데 그 자리를 뺏을 순 없죠.

Q 농구천재라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남다른 노력이 있었겠지요?

단체운동 후 개인운동에서 얼마나 모자란 부분을 채우느냐가 스타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개인운동을 몰래 숨어서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남들이 잘 때 하니까 숨어서 한다고 보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를 한 바퀴 뒀다든지, 혼자 슛 연습한다든지.. 줄넘기는 요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하루 1000개를 목표로 몇 달 동안 매일 해서 근육을 만들면 점프가 높아지고 체중 시간이 길어집니다. 밤에는 누워서 천장 보고 슈팅 모션 500개를 한다든지, 남들의 두 배 노력해야 될 수 있어요.

Q 그런 개인연습을 언제까지 하셨나요?

대학 가서까지 했죠. 중앙대 농구부는 안성에 있었는데 야간에 캠퍼스를 뛰거나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에 혼자 들어가 슛 연습도 많이 했어요. 태릉선수촌에서는 단체훈련이 하루 네 번이니까 개인운동은 할 시간이 없었고요.

Q 2014년 KBL 신인 선수 드래프트 당시 아들 웅이를 안 뽑아서 이혼당할 뻔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심각했죠. 웅이는 드래프트 3순위 안에 들 수 있었는데 정효근이라는 선수를 높이 평가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이 3번으로 그 선수를 뽑는 바람에 4번째로 밀렸죠. 사실 뽑고 싶었어요. 우리 팀 리스트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팀워크를 생각하면 뽑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만약 웅이를 뽑았다면 허재 아들이라서 뽑혔다느니, 실력도 안 되는데 경기에 뒀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마침 KCC 뒤 순번이 원주 동부(현 DB)였는데 중앙대 후배인 김영만 감독이 ‘형님, 어려우실 것 같으면 제가 뽑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동부 입장에서 필요한 선수였고요.

Q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한테 전화를 20통 넘게 걸었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라는 말까지 했어요. 웅이에게도 몇 순위로 뽑혔는지가 평생 따라다니는 기록이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었

죠. ‘아빠, 나 이제 농구 안 할래’라고 말할 정도로 상처를 크게 입었던 것 같아요. 아들 보기도, 와이프 보기도 미안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동부에서 잘 성장해 좋은 선수가 됐으니 해피엔딩이 된 거죠.

Q 2018년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웅이·훈이를 다 뽑아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농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 예비 엔트리 24명을 대한농구협회에서 우리한테 줬고, 감독이 그중에서 12명을 추리는 겁니다. 왜 그 선수들을 뽑았는지 기술위원들과 난상토론을 거쳐서 최종 엔트리를 결정합니다. 저는 웅이와 훈이가 대표팀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둘 다 뽑아야 한다고 했어요. 당시 골밑 요원들이 줄부상을 당해 3위 안에만 들면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Q 결국 3위를 했고, 귀국해 사표를 냈죠.

필리핀을 이겨야 준결승전에 나가는데 그 팀에 NBA에서 뛰는 선수가 있었어요. 필리핀을 이긴 것도 다행이었는데 준결승에서 이란에 큰 점수 차로 지고 나니 대만 꺾고 3위 했는데도 패장 취급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귀국해 한숨 자고 나왔는데 그새 기술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누구 옛 먹이는 거냐’ 하면서 나도 바로 사표를 냈죠.

Q 아들 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둘째는 대시하는 게 좋고, 큰애는 확률 높은 농구를 합니다. 훈이는 확률보다는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웅이는 안전한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죠. 둘의 장점이 잘 섞여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플레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레전드는 어떻게 되나요.

남들이 인정하는 레전드가 진정한 레전드예요. 끊임없는 노력과 승부욕도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의 도움과 인정이 없으면 크게 될 수 없어요. 자기 관리와 더불어 주위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허재와 아들
허훈·허웅(왼쪽부터).

MZ세대 신조어 능력평가



정치, 사회, 경제,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MZ세대 관련 기사가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다. 요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MZ세대'는 1980년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해 부르는 용어다. MZ세대가 옆자리에 앉아 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로 한걸음 가까워져보자. 정리=강은비

성명	
사원번호	

OX 퀴즈

1. '군썽'은 '군침이 썽 도네'의 줄임말이다.
2. '레게노'는 '레게 음악 좋네'라는 표현에서 나온 용어다.
3.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재미있는 척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찐텐'이라고 한다.
4. '썹썹파리'는 아주 작고 하찮은 양, 또는 시시하고 별 볼일 없이 평범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객관식

1. 다음 중 신조어 '재질'의 사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스타일 완전 내 재질
② 옷 재질이 뭐야?
③ 이 노래 완전 재질 최고!
2. '완내스'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① 사바사
② 취저
③ 스라벨
3. '스블재'의 뜻 풀이로 옳은 것은?
① 스스로 불러온 재앙
② 스트레스 불태우고 재밌게 놀자
③ 스타일이 불편하고 재미없다
4.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 의심을 표현하는 단어는?
① 킹반네
② 킹리적갓심
③ 킹정
5. 사소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고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① 엄근진
② 썹바
③ 핑프

완! 완전 내스타일
완내스
#2021신조어 #MZ세대



주관식 ※QR코드 퀴즈!

1.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 상대를 질리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뇌의 회로가 끊어진 것처럼 사고가 정지된다'는 뜻의 이 단어는? (ex. 초성 힌트 ㄴㅈ)
2. 다양성이 추구되는 현대사회 모습을 반영한 신조어다. MZ세대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이 단어는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 줘라'는 뜻으로 쓰인다. (ex. 초성 힌트 ㅅㅈㅈㅇ)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지난 호 주관식 답

1. 디에이치자이개포 현장
2. SUP YOGA / 플로팅 요가



1. ㄴㅈ 2. ㅅㅈㅈㅇ 3. ㅅㅈㅈㅇ 4. ㅅㅈㅈㅇ 5. ㅅㅈㅈㅇ 6. ㅅㅈㅈㅇ 7. ㅅㅈㅈㅇ 8. ㅅㅈㅈㅇ 9. ㅅㅈㅈㅇ 10. ㅅㅈㅈㅇ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Q 401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2021 신입사원 'CEO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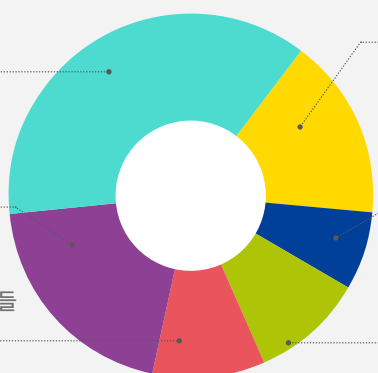
37%

GTX-C 노선 우선협상자로 선정

20%

현대건설의 안전·품질을 선도하는 사람들

10%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현대건설인의 퇴근 후 라이프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내 최다 기술사 보유자 인터뷰

#현장 잊지 못할 에피소드



✓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7월 30(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2021. 10. 24 (일)까지
픽크닉 piknic

계절의 변화를 품는 ‘느린’ 전시, 정원 만들기 GARDENING



1 구기정 작가의 작품, 초과된 풍경(2021), 2 전시 포스터, 3 픽크닉(piknic) 전시장 외관, 4 픽크닉 옥상에 조성된 정영선 소장의 나의 정원(2021), 5 최정화 작가의 너 없는 나도, 나 없는 너도(2021).